

**5월 25일(월) / 시119**

▶**내용요약:**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이 무질서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매 여덟 절씩 22연으로 짜인 매우 치밀하고 정돈된 지혜 시다. 22연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어 답관체(이합체, acrostic)의 진수를 보여준다. 독특하게 112절만 제외하고 매절마다 ‘율법’(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항상 제시되어 있는 것도 본시의 특징이다. 율법에 대한 경건한 다짐(1-8절), 온전케하는 말씀(9-16절), 말씀을 지키는 중의 간구(17-24절), 소생케 하는 주의 말씀(25-32절), 굳은 심지와 열심히 말씀을 좇았다는 결심(33-40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된 말씀(41-48절),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49-56절), 주의 계명을 신숙히 지키겠다는 다짐(57-64절), 고난 중에 율례를 배움(65-72절),...주의 말씀에 대한 감탄(137-144절),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함(169-176절)이 고백되고 있다.

▶**질문:** 시119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103절)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말씀은 어떠한가?

**5월 28일(목) / 잠4-6**

▶**내용요약:** 4장은 지혜가 주는 무한한 유익(1-9절)과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 교훈들(10-27절)을 준다. 본 장에서는 ‘하지말라’는 입장에서 지혜추구의 교훈을 준다. 5장-7장까지는 지혜 추구 자가 유의해야 할 삶의 원칙들을 교훈한다. 5장은 인간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성적(性的)인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6장은 지혜 자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삶의 자세, 즉 보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 게으른 자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경고, 음행을 금하라는 경고와 더불어 그 일로 빚어지게 될 고통스런 결과에 대해 교훈한다.

▶**질문:** 잠언5장은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 교훈을 주는가?

▶**생각하기:** 그리스도인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 거룩과 성실로 자신을 독려해가야 한다. 성화(聖化)에의 노력 없이는 최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다.

**5월 31일(일) / 잠13-15**

▶**내용요약:** 13장은 지혜로운 자의 한 특징인 온전하고 바른 지혜를 즐겨 듣는 일의 귀중함을 가르친다.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항상 자신의 영육에 유익이 되는 선한 교훈과 의로운 깨우침을 듣고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 14장은 어리석은 자의 악하고 교만한 행실과 그에 반하는 지혜로운 자의 선하고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행실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어리석은 자의 실상을 모습을 밝히고

**5월 26일(화) / 시120-123**

▶**내용요약:**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진 찬양시다. 120편은 도역이 다윗의 처지를 사울에게 밀고했던 때의 아픔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노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난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 악인의 심판을 갈망, 화평을 깨는 자들에 대한 탄식으로 엮여져 있다. 121편은 성전을 바라며 순례하던 신양인이 순례동안 어려움 없이 순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지은 시다. 도움의 근원이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며,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122편은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자은 시로 예루살렘 도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 장차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하늘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123편은 바벨론 포로 말기나 혹은 본토 귀향 후 원주민들의 모진 훼방을 배경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의 아픔을 던지고 오직 위로와 소망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그분께 긍휼을 호소한다.

▶**질문:** 120-134편의 부제는 무엇인가?

▶**생각하기:**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고백했다.

**5월 29일(금) / 잠7-9**

▶**내용요약:** 5장부터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주의 해야 할 삶의 철칙이 주어진다. 그 중 7장은 음란의 폐해에 대해 한 미련하고 충동적인 청년과를 미혹하는 음녀(도덕적으로 음탕한 여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결혼윤리에서 벗어난 여자. 창2:20-25)의 행동을 예로 들어 좀더 실제적이고 현실감 있게 다시 교훈을 준다. 5-7장까지는 지혜에 반하는 어리석음 중 음행과 타락한 쾌락추구와 그 폐해에 대해 가르친데 이어 8장은 지혜가 여성명사로 표기됨으로 앞에서 언급된 음녀와 극명히 대비되는 지혜를 가르친다. 지혜를 좇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일이다(35절). 5-7장에서 언급한 어리석은 자의 형태로 으만을 소개하였고 8장에서 그에 반하는 무한한 가치를 언급한 반면 9장은 지혜와 미련을 의인화하여 그들의 잔치초정과 결과를 교훈한다.

▶**질문:**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누구인가?

▶**생각하기:** 성(性)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로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타락하고 부패한 욕정의 도구로 왜곡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기를 들고 있다.

(1-6절), 그런 점에서 그들과의 교제를 중단할 것을 가르친다(7-16절). 또한 이웃에게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혜자의 선행과 영광된 보상에 관해도 가르치고 있다. 15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언어생활의 차이점을 지적하고(1-7절),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엄청난 간격을 소개하며(8-17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 여러 모양으로 가르친다(18-33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과 만족

**5월 27일(수) / 잠1-3**

▶**내용요약:** 지혜의 책으로 불려지는 잠언은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름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다. 그는 3천이나 되는 많은 잠언을 남겼다(왕상4:32). 1장은 잠언의 서론으로 잠언의 목적,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실제적인 지혜로 악인을 멀리할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2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된 결과, 지혜가 인간 삶에 어떤 유익과 선한 영향을 제공하는지에 관해 강조한다. 3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유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심도 깊게 소개한다. 본장은 전체를 3부(1-10, 11-20, 21-35절)로 나누어 권면하는데 각부마다 ‘내 아들이’로 시작하고 있다. 1-26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유익을, 27-35절은 인간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유익을 적고 있다.

▶**질문:** 잠언은 어떤 책으로 불려지는가?

▶**생각하기:** 잠언이 말하는 ‘지혜’(호크마)는 삶의 기술이나 재주나 이론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슬기로운 삶의 능력이요 경건을 의미한다(1:7-9절).

**5월 30일(토) / 잠10-12**

▶**내용요약:** 10장부터는 매우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소재를 가지고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여 양자 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곧 참 지혜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다. 11장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반드시 의(義)를 추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허탄하고 그릇된 삶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의인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적고 있다. 12장은 의인과 악인을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으로 마음, 혀, 손, 발 등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교훈한다.

▶**질문:** 11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을 말하나?

▶**생각하기:** 오늘처럼 의(義)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의료윤리 삶이 무시된 적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로 인한 궁극적인 삶의 결과를 내다보며(고후5:1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의료윤리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한다.

을 채우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상실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질문:** 15장은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간의 어떤 차이를 교훈하고 있는가?

▶**생각하기:** 하나님의 백성은 대 이웃과 대 사회에 대한 빛 된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자.